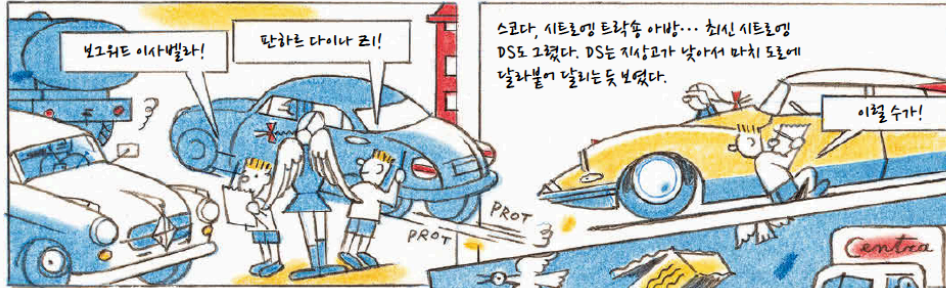


# Porsche Teens

1956년, 나는 열살 꼬마였다. 밤에 나가면 로자 누나가 수호천사처럼 늘 곁에 있었다. 우리는 코르도네이크에서 약간 떨어진 도로변에 살았다. 자동차가 미친 듯이 좋았다! 보는 차마다 달달 뒤로 그림을 그렸다.

별기에 만화가 이버 뮐른이 <크리스토퍼스>를 위해 포르쉐와 처음 만남 순간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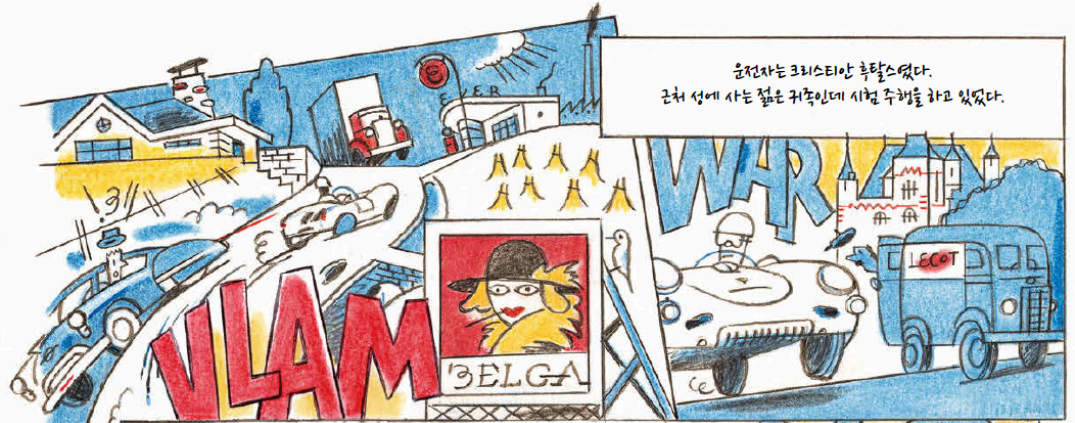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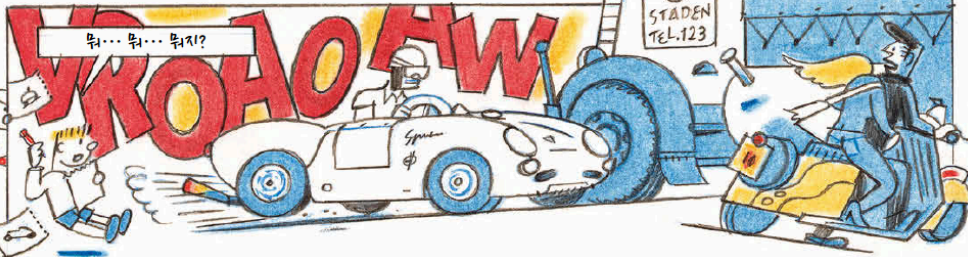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천천히 달렸고 마주치면 손을 흔들었다.



어느 날 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날아오듯 다가왔다.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를 흘리리며 머뭇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경주차라도 되는 듯 작은 차 운전석에는 하얀색 헬멧이 뒹뒹히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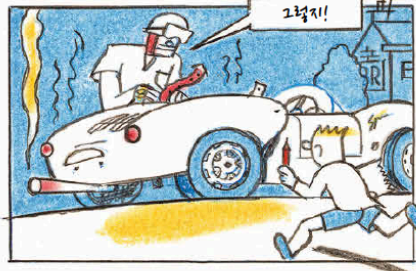
운전자는 크리스티안 후탈스였다. 근처 성에 사는 젊은 귀족인데 시범 주행을 하고 있었다.

후탈스는 진짜 레이서였고 포르쉐를 몰았다. 별기에령이었던 콩고 레오폴트빌에서 개최된 그랑프리를 비롯해 시에, 잔트보르트, 파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린 레이스에 나가 우승했다. 베를린 아부스, 프랑코프산, 아르헨티나에서도 시상대에 올랐다.



순식간에 후탈스는 자신의 허피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날 나는 작은 스포츠카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림 아래에 멋진 이름을 적었다. 포르쉐 550 스파이더.



당시 포르쉐 550 스파이더 같은 레이싱카도 도로 주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레이싱카를 직접 몰고 트랙에 가서 레이스에 참가한 후, 다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레이스 트랙에서만 레이싱카를 운전할 수 있다.